



최근 북한 동향 및 한반도 정세 분석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 남성욱

목 차

I 최근 북한 동향 평가

- 내부 동향
- 대미 동향
- 대남 동향

II 향후 북한 대응 전망

- 대미 동향
- 대남 동향

III 한반도 정세 분석과 대북정책 방향

I. 최근 북한 동향 평가

내부 동향

김정일 건강 stroke 발병과 회복

2008년

8월



10월



11월



12월



2009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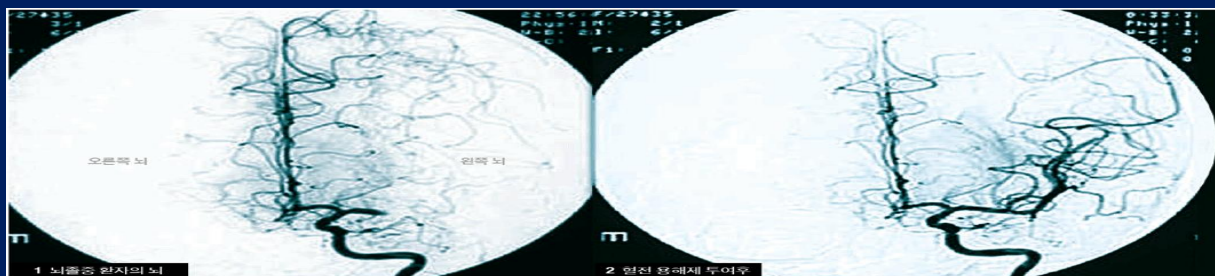
9월



10월

김정일의 체제 운영 장악 과시 => 건강 일부 회복, 정책 결정 주도

뇌졸중 김정일 그 후 1년



1 뇌졸중 환자의 뇌

2 원전 용해제 투여후



1 왼쪽 중대뇌동맥이 막혀 뇌경색이 발생한 환자의 뇌혈관 촬영사진.
 2 혈전 용해제 투여후 막힌 혈관이 풀리면서 왼쪽 뇌부위에 혈액순환이 잘되고 있다.
 3 뇌졸중 발생후 14개월이 지난 10월 4일, 평양 순안광장에서 총리의 원자바오 총리를 포옹하는 김정일 위원장. 손가락 근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왼손이 부자연스럽다.

위험요인 많을수록 피하기 힘든 뇌졸중

66세의 고령.
 비만 체형.
 당뇨병 · 고혈압 · 관상동맥 질환 보유설'

초기 집중 치료와 감량 성공이 회복의 열쇠

11월 2일 (80일 경과)

이동이 가능 부축 없이 혼자 서 있을 정도로 회복. 단, 왼손은 힘없이 늘어진 상태.

12월 1일 [그후로 한달]

난간을 잡은 채보폭을 좁혀 옆으로 움직임

12월 11일 왼팔을 가슴까지 들어올림

12월 18~19일

두 손을 얼굴까지 올려 손뼉을 치는 모습

이 무렵부터 이전에 비해 볼이 움푹 들어간 수척한 모습이 눈에 띄

부위마다 회복기간 달라

발병 이전 상태로 완전회복 불가

원자바오 총리를 포옹하면서 왼손 검지손가락을 제대로 펴지 못했다(사진).

손가락 회복 가장 느림

1년 정도 지나면 뇌기능이 발병 전의 90%까지는 회복 가능

김정일 신변의 변화



- 함흥시 경제군중 대회, 왼손을 가급적 움직이지 않은 채 오른손만으로 어색하게 박수 (3月7日)
- 만성신부전증설.



- 2009년도 157차례 현지지도, 역대 최다빈도
- 올해 30여차례 공식행사 참여



후계체제



순서대로 서봐!!!



2008년 8월 김정일 와병이후 활발히 진행 되었다가

2009년 6월 이후 후계논의 물밑으로 가라 앉음

후계체제 최근 동향



10월 9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여동생인 김경희 와남편 장성택 당 부장, 김기남 노동당 비서 등 관람. 황해북도 예술극장 개관공연에서 후계자로 내정된 김정은의 찬양가요인 '발걸음' 합창공연

“우리 김 대장 발걸음 2월의 위업 받들어” 가사 김 대장’ 김정은 지칭

김정일 후계체제 분석

- 22세 후계자 수업시작 및 경쟁(1966)
- 32세 후계자 확정(1974)
- 38세 후계자 공식화(1980)
- 43세 실권 확정(1985)
- 49세 최고사령관(1991)

발걸음 공연=>2012년 공식화 전망

150일 전투

[09. 4. 20 ~ 09. 9. 16]



- 제국주의자들 고립 압살정책에 맞서 식량문제를 우리 손으로 해결
- 생산계획을 11% 초과수행
- 공업생산 전년 동기대비 1.2배로 성장
- 전반적 경제가 높은 수준으로 발전
- 생산과 건설에서 자립적 공업토대
- 목표대비 112% 달성 주장

100일 전투

[09. 9. ~ 09. 연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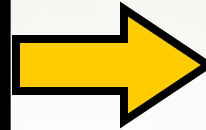


-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를 계속 이어감
- 김정은의 후계자로서 업적 쌓기 차원 김정은이 직접 발기하고 지휘함
- 농업전선에 힘을 총집중 · 총동원 오곡백과 무르익는 풍년가을
- * 평성시장 폐쇄 등 사경제 압박

2009년 수해 냉해로 식량생산 400만톤 이하로 감소

=>남측에서 식량 지원 절박

北, 17년 만에 화폐 개혁 전격 단행 ; 교환비율 100 : 1 (11월 30일)



경제개혁 조치 이후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목적

암거래 시장에서 유통되는 지하 자금을 끌어내려는 의도

평양 주민들이 큰 혼란, 암시장에서 위안화나 달러 교환



- **2009년 11월 30일 화폐개혁 이후 극심한 인플레이션**
 - 1달러 기준 최고 580원 거래, 개혁 이전 보다 상승(신권 기준350원)
쌀 kg 기준 거래가격 200원은 600원까지 상승
- **극심한 물자부족 현상과 국경 무역의 위축**
 - 관세 2배인상, 달러 · 위안화 등 외국 화폐 사용 금지
- **박남기 노동당 계획재정부장 해임 (1월9일 이후 동향 없음)**
 - 2005년 7월에 북한 경제를 총괄하는 당 계획재정부장에 임명
 - 북한 내 자생적 시장경제 요소의 철폐를 주장했던 주요 인물
 - 북한의 문책성 인사 사례
 - : 2002년 7.1조치 이듬해 총리로 발탁돼 시장경제 도입을 주도했던 박봉주도 2007년 노동당과 군부의 집중 견제로 실각,
평안남도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 지배인으로 좌천



▪ 시장가격의 통제 (2월 1일)

- 100가지 품목의 국정가격 고시, 쌀 kg 기준 240원(2004년 4월 수준)
부분적 외화사용 환율의 300 하락

▪ 김영일 내각총리 사과문 발표 (2월 5일)

-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인민반장과 일반 간부들 소집
- 화폐개혁과 시장폐쇄 조치의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 사과
- 국정가격 운용 등 후속 조치에 충실히 따라줄 것을 당부
- 주요 국가기관과 국영기업소의 외화벌이 기관 중국과의 사업을 재개, 불법 외화사용자 가운데 외화출처가 확인된 경우는 석방

▪ 인민보안성 · 국가안전보위부 연합성명 발표 (2월 8일)

- 불순세력을 쓸어버리기 위한 보복성전을 선언
- :완화된 경제제도와 함께 주민통제를 대폭 강화할 것을 예상



대풍그룹

조직도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

- 중국과 유럽지역은 물론 남측 기업을 상대로 적극적인 투자 유치 목적 (2010년 1월 20일 국방위원회 결정)
- 지난 수년간 북한의 경제발전이 잘 되지 않아 새로운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서 대풍그룹이 탄생 (박철수총재)
- 6개 부서를 두고 국내 종합상사와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지만 대풍그룹은 북측의 당과 군, 내각이 참여한 거대조직
- 최근 100억달러 유치설(說)은 신빙성이 낮지만 대규모 투자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분명함
- 농업 외에 철도와 고속도로, 항만, 공항, 전력 등 인프라 분야와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추진

나진선봉특구

북한이 계획 중인 외자유치 중점도시 8곳

신의주 (경공업·방직) 청진(중공업)

나선(석유화학)

김책(금속제련)

함흥(석탄화학)

원산(조선)

평양(하이테크산업)

남포(의약품·식용유)

자료: 니혼게이자신문

도시 특정구역 12곳 외국자본에 50년 저리 임대 추진 北 '미니 중국식 개방'으로 가나

북한이 평양을 개혁을 추진한 뒤, 5개 도시의 12개 특정 지역을 외국자본 투자에 개방할 계획이라는 방언을 여러 언론사에 관련 방언을 8월 26일인 미국의 워싱턴에서 블로거들 앞에서 중국 베이징(조경)의 북한 대사관 앞에서 밝혔다.

개방 대상 도시에는 이미 특수구 조성된 개성과 나진선 봉천이라고 중국 베이징(조경)의 성 단둥(조선)의 개성이라고 있는 신의주도 포함해 있다. 다만 도시 전체를 개방하지 않고는 개성이나 일부 구역만 사정하는 '미니 중국식 개방'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개방구'와 비슷한 형태이다. 이 외국 자본의 투자 또는 합작으로 이 지역 도시를 '50년 임대'의 임대 형태로 임대할 수 있는 시범을 할 방침이다. 중국 기업은 투자 후 50년 동안에 50%의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러나 사전에 전체 통상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북한은 이 같은 방언에 이관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대외 언론에 알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대외 언론, 소...

중소식품 "평양 개성 신의주 포함" 내달 확정

일부선 "개방 신력 심는게 우선" 실효성에 의문

中, 北라진항 10년사용권 얻어

'창지투 선도구' 개발지역 (청춘, 지린, 투먼 일대 3만㎡)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한민국

러시아

동해

라진항

중국지린성 라진항 10년 사용권 얻음

北, 나진항 전면 개방 - 화폐개혁 실패한 돌파구로 선택

8개 도시를 경제특구로 지정하는 내용의 신경제정책 추진 중

중국의 개혁개방 모델을 상당 부분 흡수한 것으로
북한의 개방의사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

對美 동향





8월 19일 샌타페이 공관 스티븐 보즈워스 전 주한 대사 리근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

김명길 주미공사,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 방문

보즈워스 대사
북한 방문 초청

미국 동북아 협력대화
[10.26-30] 참석

북미 직접대화에 대한 강한 의지
보즈워스 방북 시기, 일정 놓고 기싸움 전개

'오바마, 보즈워스 방북 결정'



미국무부 '北에 보즈워스 방북용의 전달' [11월 10일]

“방북 목적은 6자회담 재개” [WP]

보즈워스, 12월 8일 방북, 北美대화 착수



“보즈워스, 성 김 북핵 특사 등 오산서 군용기로 방북”

“보즈워스, 北에 연락사무소 제기할 수도”

“北, 보즈워스 방북 시 6자 복귀 일정 제시”

보즈워스 訪北 브리핑 ‘北-美 미래비전’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양자관계의 미래 비전’ 전달
北 비핵화팬 北美관계 개선 => 오바마 친서 전달



〈보즈워스〉 北에 우라늄 농축 우려 전달

평화협정 논의,

협상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들에 대해서도 논의

- 6자회담 복귀가 우선되어야 협상이 가능.

〈강석주〉 北, 美에 대북 제재해제 요구

6자 회담 복귀할 명분 마련해 달라





대화

우리나라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는 문제는 무엇보다도 미국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버리고 조미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해결될 수 있다.

평양방송 8.31

압박

우라늄 농축 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결속(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으며, 폐연료봉 재처리로 추출된 플루토늄이 무기화되고 있다. 유엔 안보리가 (제재와 대화 중) 어느 길이 조선반도와 세계 비핵화에 더 이로운가를 판단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자위적인 강경 대응조치들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중앙통신 9.4

핵무기 제조 과정



우라늄탄과 플루토늄탄 비교

우라늄탄		플루토늄탄
소규모 원심분리기로 농축 우라늄 제조 가능, 은닉하기 쉬워	외부 노출 여부	플루토늄 확보하려면 원자로·재처리 시설 필수적, 외부에 노출돼
핵실험 없이 실전 사용 가능	핵실험 여부	핵무기 성공 여부 확인 위해 관례적으로 핵실험 실시
단순한 폭발 구조, 핵무기 제조에 용이	핵무기 구조	복잡한 폭발 구조, 제조 기술 난이도 높아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對南 동향



2008년 상반기 무슨 일이 있었나

北, 3월말부터 대남 비난 지속, 당국간 회담 중단

3.27

北요구, 개성공단 南요원 철수 남북관계 당분간 경색 가능성

2008년 03월 29일 금요일 A01면 종합

金통일 발언 문제 심아... 정부 "유감" 표명

북한이 김정은 총리부 장관의 개성공단과 관련된 발언을 통해 공인된 11명의 철수를 요청한 데 대해 남측이 "남북교류협력사무소 협정"에 무효에 상응하던 남측 당국원 11명의 철수를 요구했다.

북한은 개성공단 협정사무소가 지난 27일 김정은 총리부 장관이 개성공단을 방문할 때 11명의 철수를 요구했고, 정부는 북측 요구에 수동적인 대응을 보였다.

북한은 이번엔 대통령 주재지인 개성공단의 개성공단 협정사무소가 개성공단을 방문할 때 11명의 철수를 요구했고, 정부는 북측 요구에 수동적인 대응을 보였다.

북한은 이번엔 대통령 주재지인 개성공단의 개성공단 협정사무소가 개성공단을 방문할 때 11명의 철수를 요구했고, 정부는 북측 요구에 수동적인 대응을 보였다.

북한은 이번엔 대통령 주재지인 개성공단의 개성공단 협정사무소가 개성공단을 방문할 때 11명의 철수를 요구했고, 정부는 북측 요구에 수동적인 대응을 보였다.

4.1

北, 李대통령 실명 거론 비난

2008년 04월 02일 수요일 A62면 종합

비핵·개방·3000 구상도 노골적 비방... 남북관계 급랭

북 '北 의도 면밀히 분석'... 입장 표명 신중

북한이 1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며 "북한은 대남정책을 수립할 때 북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은 대남정책을 수립할 때 북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번엔 대통령 주재지인 개성공단의 개성공단 협정사무소가 개성공단을 방문할 때 11명의 철수를 요구했고, 정부는 북측 요구에 수동적인 대응을 보였다.

북한은 이번엔 대통령 주재지인 개성공단의 개성공단 협정사무소가 개성공단을 방문할 때 11명의 철수를 요구했고, 정부는 북측 요구에 수동적인 대응을 보였다.

4.26

北, 남북연락사무소 제의 거부

2008년 04월 28일 월요일 A02면 종합

북 "北태도에 일회일비 안해"

북한 조선투명대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26일 논평을 내고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남북연락사무소 설치를 사실상 거부했다.

북한 측 웹사이트인 '우리민력끼리'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이 대통령의 제안에 "북남관계 악화의 책임을 회피하며 여론의 시선을 딴 대로 돌리기 위한 얇은 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 신문은 "이명박 대통령은 김정은이 대남정책을 수립할 때 북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은 대남정책을 수립할 때 북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5.8

北 '제2의 6·25전쟁' 위협

2008년 05월 09일 금요일 A07면 정치

"이명박정부가 군사적 긴장 고조시켜"

북한은 8일 '이명박 정부와 군부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그것은 다시 제2의 6·25전쟁으로 번질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에 대해 강도 높은 경계를 했다.

북한은 이번엔 대통령 주재지인 개성공단의 개성공단 협정사무소가 개성공단을 방문할 때 11명의 철수를 요구했고, 정부는 북측 요구에 수동적인 대응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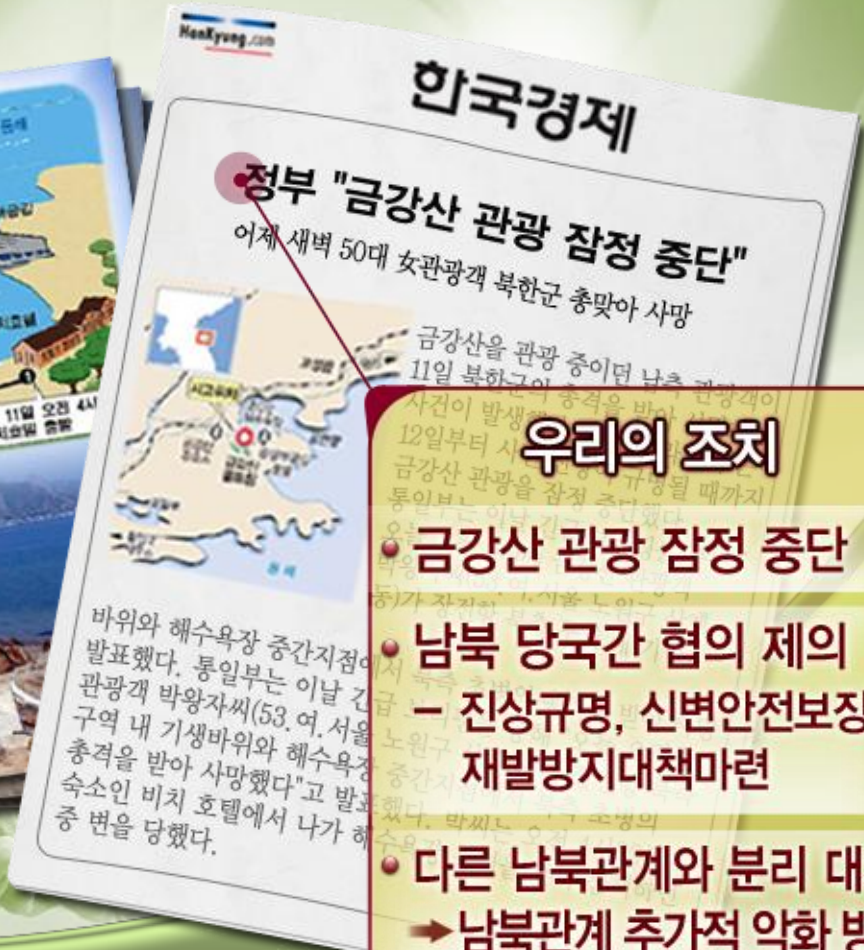
북한은 이번엔 대통령 주재지인 개성공단의 개성공단 협정사무소가 개성공단을 방문할 때 11명의 철수를 요구했고, 정부는 북측 요구에 수동적인 대응을 보였다.

2008년 하반기 무슨 일이 있었나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으로 남북관계 어려움 가중



7.11 금강산에서 관광객이 북한군 총격에 의해 사망하는 사건 발생



한국경제

정부 "금강산 관광 잠정 중단"

어제 새벽 50대 女관광객 북한군 총 맞아 사망



우리의 조치

● 금강산 관광 잠정 중단

● 남북 당국간 협의 제의
- 진상규명, 신변안전보장, 재발방지대책마련

● 다른 남북관계와 분리 대처
→ 남북관계 추가적 악화 방지

2008년 하반기 무슨 일이 있었나

10월 이후 북한의 대남 위협 강화



10.2 남북군사실무회담 - 대북전단살포 중지 요구



10.16 노동신문 논평원 - 남북관계 전면차단 경고



11.12 판문점 남북직통전화 단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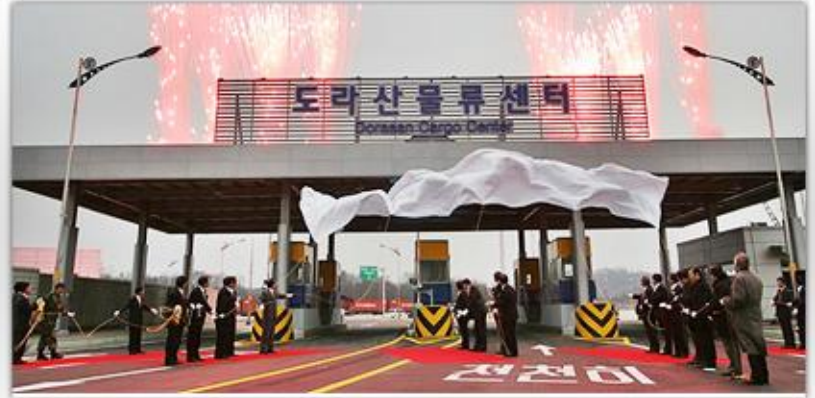
12.1 남북군사분계선 육로통행 제한

2008년 교류협력 성과

그러나,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은 지속적으로 발전



남북왕래인원 : 18만 6천명 (전년대비 17.3% 증가)



남북교역액 : 18.2억달러 (전년대비 1.2% 증가)



금강산관광 (7.11기준) : 20만명 (85%증가)



개성공단 활동 증가

- 가동기업수 93개 (41%증가)
- 생산액 2.5억달러 (35%증가)
- 북한근로자 3만 9천명 (70%증가)

북한 군 참모부 대변인 성명 (09. 1. 17)



- “남한이 대결의 길을 선택한 이상 전면 대결태세에 진입하게 될 것”
- “남한 군부의 대북 응징 준비에 강력한 군사적 대응조치가 따르게 될 것”
- “서해 영해에 대한 침범행위가 계속되는 한 서해 해상군사 분계선을 그대로 고수하게 될 것”

장거리 로켓 발사 (09. 4. 5)



북한이 IMO에 통보한 위성 발사 개요

북한, 4월4일~8일 사이 발사 예정으로 로켓 좌표(동해쪽 궤도 예상)와 비행기·선박들 항행안전에 필요한 자료를 국제해사기구(IMO)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통보

▲ 탑재물이 탄두일 경우 미사일, 위성잠비일 경우 위성 발사체로 판단
▲ 로켓: 3단계 추진체 사용 동일
▲ 발사각도 및 운항궤도 미세 차이

인공위성
발사후 수분만에 궤도 진입

북 '광명성2호' 위성 탑재 주장

98년 북한 발사, 실패 추정 '광명성 1호'

미사일
미사일의 궤적은 위성보다 좀더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감.

위성과 미사일 모두 대기권 밖으로 나가지만 미사일은 재진입

대기권

북한 ① 북주장, 은하2호 로켓 탑재 '광명성2호'

① 1단계 추진체 동해상 낙하 ② 2단계 추진체 태평양상 낙하

③ 2단계 로켓분리 ④ 3단계 로켓분리

① 로켓 발사 ③ 2단계 로켓분리
② 1단계 로켓분리 ④ 3단계 로켓분리

미국

연합뉴스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광명성 2호' 장거리 로켓 발사

핵 실험 & 단거리 미사일 발사 (09. 5. 25)

국민일보

북 2차 핵실험·미사일 3발 발사

1차와 같은 핵화 중계서 연근 4인 4인 중계진
북 "성공적으로 진행" - 실험 위력 5배 커지

북한이 25일 오전 10시 30분경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하면서, 핵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북은 핵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발표하면서, 핵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발표했다.

중영일보

한 손엔 '국화' 한 손엔 '핵' ... 두 얼굴의 김정일

“심상한 예도” 조전 4시간 만에 2차 핵실험
피차 S&P “한국 신용 영향 없다”

북한이 25일 오전 10시 30분경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하면서, 핵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북은 핵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발표했다.

朝鮮日報

北, 2차 핵실험... 1차보다 훨씬 강했다

위력 5배에 커진 듯- 단거리 미사일도 3발 발사
정부 “충남할 수 없는 도발- 당당하게 대응할 것”

북한이 25일 오전 10시 30분경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하면서, 핵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북은 핵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발표했다.

東亞日報

北, 2년7개월 만에 또 핵실험... 미사일 3발 발사

위력 1차때보다 최대 2배 커진 듯- 시해도도 정태경지 설정 미사일 수거장사 예상

북한이 25일 오전 10시 30분경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하면서, 핵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북은 핵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발표했다.

중영일보

한 손엔 '국화' 한 손엔 '핵' ... 두 얼굴의 김정일

“심상한 예도” 조전 4시간 만에 2차 핵실험
피차 S&P “한국 신용 영향 없다”

북한이 25일 오전 10시 30분경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하면서, 핵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북은 핵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발표했다.

한국일보

北 2차 핵실험... “1차때보다 5배 이상 위력”

위력 5배에 커진 듯- 단거리 미사일도 3발 발사
정부 “충남할 수 없는 도발- 당당하게 대응할 것”

북한이 25일 오전 10시 30분경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하면서, 핵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북은 핵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발표했다.

서울신문

北, 2차 핵실험- 단거리미사일 3발 발사

위력 1차때보다 최대 2배 커진 듯- 시해도도 정태경지 설정 미사일 수거장사 예상

북한이 25일 오전 10시 30분경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하면서, 핵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북은 핵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발표했다.

중영일보

한 손엔 '국화' 한 손엔 '핵' ... 두 얼굴의 김정일

“심상한 예도” 조전 4시간 만에 2차 핵실험
피차 S&P “한국 신용 영향 없다”

북한이 25일 오전 10시 30분경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하면서, 핵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북은 핵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발표했다.

세계일보

北, 2차 핵실험... 미사일 3발도 발사

위력 5배에 커진 듯- 단거리 미사일도 3발 발사
정부 “충남할 수 없는 도발- 당당하게 대응할 것”

북한이 25일 오전 10시 30분경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하면서, 핵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북은 핵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한반도 위기 조장



북한 말대로 진행되는 한반도 위기

2009년 1월 17일
“대남 전면적 대결태세 진입”



3월 중
‘키 리졸브’ 훈련 빌미 군 통신선 차단

2월 24일
“위성 발사 준비 본격 진행”



4월 5일
장거리 로켓 발사

3월 30일
“남한 PSI 참여는 북에 대한 선전포고”



5월 27일
“서해 5도 항행 안전 담보 못해”

4월 14일
“원자로 폐연료봉 재처리 시작”



4월 말
폐연료봉 재처리 작업 확인

4월 29일
“핵실험·ICBM발사·경수로 원료 개발”



5월 25일
2차 지하 핵실험 확인



안보리 결의안 1874 채택 (09. 6. 12)

유엔 안보리 주요 대북조치 일지

결의(총 10건)

결의 제82호(1950.6.25)

북한의 38선 이북으로의 철군과 적대행위 중지 촉구, 모든 회원국에 결의 이행과 관련해 유엔에 대한 지원 제공 촉구(찬성 9, 반대 0, 기권 1<유고>).

결의 제83호(1950.6.27)

북한의 대남 무력침략 격퇴를 위해 한국에 대한 각국의 지원 권고(찬성 7, 반대 1<유고>, 표결 불참 2<이집트, 인도>, 회의불참 1<소련>).

결의 제84호(1950.7.7)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한국에 병력 및 여타 지원을 제공한 국가들에 미국 지휘하의 통합사령부에 병력 및 여타 지원 제공 권고 및 통합사령부의 유엔기 사용 승인(찬성 7, 반대 0, 기권 3<이집트, 인도, 유고>).

결의 제85호(1950.7.31)

국제사회의 한국지원을 위해 통합사령부에 구호요건 결정 요청(찬성 9, 기권 1<유고>).

결의 제88호(1950.11.8)

한국 내 유엔사령부의 특별보고서 토의에 중국대표 참석 초청(찬성 8, 반대 2<중국, 쿠바>, 기권 1<이집트>).

결의 제90호(1951.1.31)

'남침비난' 의제, 안보리 의제에서 삭제(만장일치).

결의 제702호(1991.8.6)

남북한 유엔가입을 총회에 권고(만장일치).

결의 제825호(1993.5.11)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 제고 촉구(만장일치).

결의 제1695호(2006.7.16)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대북 결의(만장일치).

결의 제1718호(2006.10.14)

북한의 1차 핵실험 실시에 따른 제재결의(만장일치).

의장성명(총 7건)

1991.8.8 = 남북한 유엔 가입 축하.

1994.3.31 = 북-IAEA(국제원자력기구)간 NPT 안전조치협정 이행을 위해 북한에 IAEA 사찰활동 허용 촉구.

1994.5.30 = IAEA 안전조치협정의 중요성 강조, IAEA의 북한 원자로 사찰 이행을 위한 북-IAEA간 협의 촉구.

1994.11.4 = 북미 기본합의(1994.10.21)가 한반도 비핵화 및 역내 평화와 안전 유지에 기여하는 긍정적 초침을 주목하며 북한이 NPT 당사국으로 남겠다고 결정한 것을 주목.





1996.10.15 = 북한 잠수함사건(1996.9.18)에 대한 우려 표명 및 정전협정 지속 강조.

2006.10.6 = 북한 핵실험 계획 발표 강력 경고 및 철회 촉구.

2009.4.13 =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비난 및 결의 1718호 제재 강화 촉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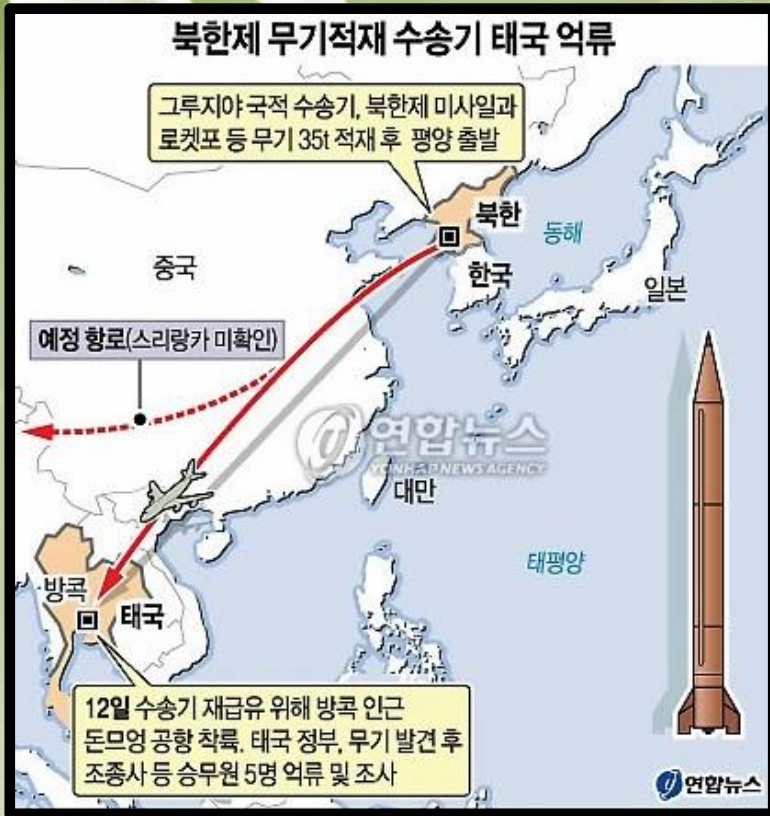


안보리 '결의1718'·'결의 1874' 주요내용 비교

	결의 1718 (2006.10.14)	결의 1874 (2009.6.12)
 핵실험 규탄 수위	규탄한다	가장 강력하게 규탄한다
 화물검색	금지품목(대부분 상가 금수 무기, 특히 WMD·미사일 관련 물자)을 적재한 북한행·발 화물검색을 포함한 협조조치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법에 따라 자국 영토내에서 북한행·발 화물 검색 기국의 동의하에 공해상에서 의심선박 검색 금지품목 발견시 국제법에 따라 압류·처분 검색·화물압류·처분, 검색 불동의 등 관련사항의 제재위 보고 의심선박에 대한 지원 서비스 금지
 무기금수 및 수출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엔재래식무기등록제대상 7대 무기류(탱크, 장갑차, 대포, 전투기, 공격용 헬기, 전함, 미사일) 미사일관련 MTCR 통제품목 생화학무기 관련 AG 통제품목 여타 안보리 또는 제재위 지정 WMD·미사일 관련 품목 사치품 회원국에 대한 금지품목 관련 대북 기술훈련, 조언, 서비스, 관련 지원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의 모든 무기 관련물자 대외수출 금지 회원국들의 북에 대한 모든 종류의 무기 및 관련물자 이전·수출 금지 핵관련 통제품목 리스트를 2007.11월 기준 NSG 리스트로 업데이트
 금융·경제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WMD·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안보리 또는 제재위가 지정한 개인·단체 등에 대한 자금·여타 금융자산 및 경제자원 동결 및 자금, 금융자산, 경제재원의 동 개인, 단체에 대한 이전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WMD·미사일 프로그램·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자산·재원 동결을 포함한 금융거래 금지 무상원조, 금융 지원, 양허성 차관의 신규 계약금지 및 기존 계약 감축 노력 WMD·미사일 프로그램·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대북 무역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금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결의안 (1874)을 공식 채택.
전체 15개 이사국 만장일치 합의로 불과 3분만에 채택

北 무기적재 수송기 태국 억류 (12월 13일)



압수된 무기 1천800만 달러 추정, 전량 폐기 결정

태국 정부 "북한 무기 압류 美 협력 있었다" 인정

특사 조문단 파견 (09. 08. 21 ~ 23)



특사 조문단
방문 후
'대통령' 호칭
처음사용

8.25 이후 대남
비난방송에서
'역도', '괴뢰'
표현 삭제

* 9.3 평양방송
"역적 패당" 등
재등장

통일신보 8.29

**남북관계 정상화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

노동신문 8.31

**화해와 단합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북한 매체, 남북화해 시대적 요구라고 선전 강화



민거대
‘북 억류’ 유성진씨 136일만에 풀려나

정부 “북쪽에 사과·대가 지불 없었다”
현정은 회장, 방북일정 또 하루 연장

북한에 장기 억류돼 있던 개성공단 현정애선, 이번 여름에 대한의 손녀딸이 되어 풀려났다. 유성진씨(46)가 13일 석방됐다. 이로써 남북관계를 무겁게 짓눌러온 남북 인권 유류 사태가 지난 136일 유예기간 일어난 지 360일 만에 해결됐다. ■ 현정애선 2년 전개성 공업부 대원인은 이날 “조선인 현정애선 사상이 개성공단에서 오후 5410 후 보고를 받았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개성공단 기업원리는 유씨 귀환 과정 상로 유씨의 신병을 우리 쪽에 안겨줬다”고 밝혔다. 현 대변인은 이어 “남세 사범과 관할은 재할 받지 대책을 세워주기 위한 할 제정할 사상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현정애선 측이 유씨 신병 인도 과정에서 북한 당국에 유류 회랑과 개발 행위 노예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쪽은 3월30일 유씨를 안병하여 “유씨가 우리 체제를 비난하고 여의위를 벌을 타워서 기 불복을 하게했다”고 주장할 바 있다. 유씨는 이날 북쪽에서 풀려나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머물다 저녁 8:30분에 군 사인계선을 넘어 도산 남작출입사무소(KCJ)에 도착해, 대기하고 있던 화제선에 타 “간서서 돌아오게 해 기원하오”는 노획과 만남을 기원하는 성우 당국과 현대

2008년 8월 14일
이민·출신
001-10-10

북한에 장기 억류돼 있던 현정애선, 이번 여름 유성진(46)씨가 136일 만에 풀려났다. 유성진씨는 김정은 총리에게 풀려나게 된 것은 다름없이 “남세 사범을 안겨줘” 정부는 앞으로 일관된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유씨 귀환을 유세 석방 지 360일을 받았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개성공단 기업원리는 유씨 귀환 과정 상로 유씨의 신병을 우리 쪽에 안겨줬다”고 밝혔다. 현정애선 측은 “남세 사범과 관할은 재할 받지 대책을 세워주기 위한 할 제정할 사상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현정애선 측이 유씨 신병 인도 과정에서 북한 당국에 유류 회랑과 개발 행위 노예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정은 회장이 유씨 귀환을 2달 막을 채운 일정을 다시 하루 연장했으나, 김정은 총리에게 “유씨가 우리 체제를 비난하고 여의위를 벌을 타워서 기 불복을 하게했다”고 주장할 바 있다. 유씨는 이날 북쪽에서 풀려나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머물다 저녁 8:30분에 군 사인계선을 넘어 도산 남작출입사무소(KCJ)에 도착해, 대기하고 있던 화제선에 타 “간서서 돌아오게 해 기원하오”는 노획과 만남을 기원하는 성우 당국과 현대

이민·출신 001-10-10

북한에 장기 억류돼 있던 현정애선, 이번 여름 유성진(46)씨가 136일 만에 풀려났다. 유성진씨는 김정은 총리에게 풀려나게 된 것은 다름없이 “남세 사범을 안겨줘” 정부는 앞으로 일관된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유씨 귀환을 유세 석방 지 360일을 받았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개성공단 기업원리는 유씨 귀환 과정 상로 유씨의 신병을 우리 쪽에 안겨줬다”고 밝혔다. 현정애선 측은 “남세 사범과 관할은 재할 받지 대책을 세워주기 위한 할 제정할 사상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현정애선 측이 유씨 신병 인도 과정에서 북한 당국에 유류 회랑과 개발 행위 노예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정은 회장이 유씨 귀환을 2달 막을 채운 일정을 다시 하루 연장했으나, 김정은 총리에게 “유씨가 우리 체제를 비난하고 여의위를 벌을 타워서 기 불복을 하게했다”고 주장할 바 있다. 유씨는 이날 북쪽에서 풀려나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머물다 저녁 8:30분에 군 사인계선을 넘어 도산 남작출입사무소(KCJ)에 도착해, 대기하고 있던 화제선에 타 “간서서 돌아오게 해 기원하오”는 노획과 만남을 기원하는 성우 당국과 현대

북한에 장기 억류돼 있던 현정애선, 이번 여름 유성진(46)씨가 136일 만에 풀려났다. 유성진씨는 김정은 총리에게 풀려나게 된 것은 다름없이 “남세 사범을 안겨줘” 정부는 앞으로 일관된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유씨 귀환을 유세 석방 지 360일을 받았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개성공단 기업원리는 유씨 귀환 과정 상로 유씨의 신병을 우리 쪽에 안겨줬다”고 밝혔다. 현정애선 측은 “남세 사범과 관할은 재할 받지 대책을 세워주기 위한 할 제정할 사상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현정애선 측이 유씨 신병 인도 과정에서 북한 당국에 유류 회랑과 개발 행위 노예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정은 회장이 유씨 귀환을 2달 막을 채운 일정을 다시 하루 연장했으나, 김정은 총리에게 “유씨가 우리 체제를 비난하고 여의위를 벌을 타워서 기 불복을 하게했다”고 주장할 바 있다. 유씨는 이날 북쪽에서 풀려나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머물다 저녁 8:30분에 군 사인계선을 넘어 도산 남작출입사무소(KCJ)에 도착해, 대기하고 있던 화제선에 타 “간서서 돌아오게 해 기원하오”는 노획과 만남을 기원하는 성우 당국과 현대

북한에 장기 억류돼 있던 현정애선, 이번 여름 유성진(46)씨가 136일 만에 풀려났다. 유성진씨는 김정은 총리에게 풀려나게 된 것은 다름없이 “남세 사범을 안겨줘” 정부는 앞으로 일관된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유씨 귀환을 유세 석방 지 360일을 받았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개성공단 기업원리는 유씨 귀환 과정 상로 유씨의 신병을 우리 쪽에 안겨줬다”고 밝혔다. 현정애선 측은 “남세 사범과 관할은 재할 받지 대책을 세워주기 위한 할 제정할 사상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현정애선 측이 유씨 신병 인도 과정에서 북한 당국에 유류 회랑과 개발 행위 노예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정은 회장이 유씨 귀환을 2달 막을 채운 일정을 다시 하루 연장했으나, 김정은 총리에게 “유씨가 우리 체제를 비난하고 여의위를 벌을 타워서 기 불복을 하게했다”고 주장할 바 있다. 유씨는 이날 북쪽에서 풀려나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머물다 저녁 8:30분에 군 사인계선을 넘어 도산 남작출입사무소(KCJ)에 도착해, 대기하고 있던 화제선에 타 “간서서 돌아오게 해 기원하오”는 노획과 만남을 기원하는 성우 당국과 현대



현정은 회장 방북, 김정일 면담 [8월 10일 ~17일]
개성공단 근로자 석방 (8월13일)
연안호 송환 (8월 31일)

36



2009년 9월 6일 방류

수공(水攻) ?
Or
기술적
사고?



2002년 9월 2일
2005년 9월 2일 방류

북한체제에 불만을 포지하고 있는 개인이나 조직이 이 지역 농사와 식수 공급에 타격을 주기위하여 의도적으로 자행한 인위적인 사고 추정說

통상적으로 북한군 9-10월 전투지휘 검열 '국가판정검열' 기간에 댐과 저수지에 대한 관리 시행說



남북 추석 전 [9.26-10.1] 이산가족 상봉

'전략적 차원의 근본적 변화' 가 아니라 '생존전술 차원' 의 습관적 국면차원 시도



Good!



B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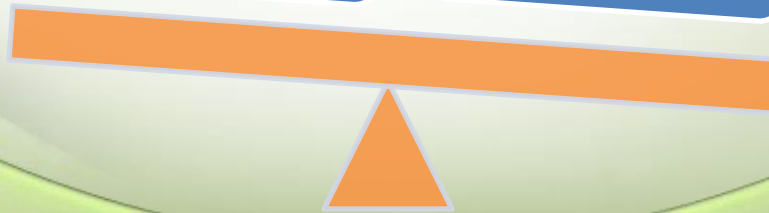


미녀응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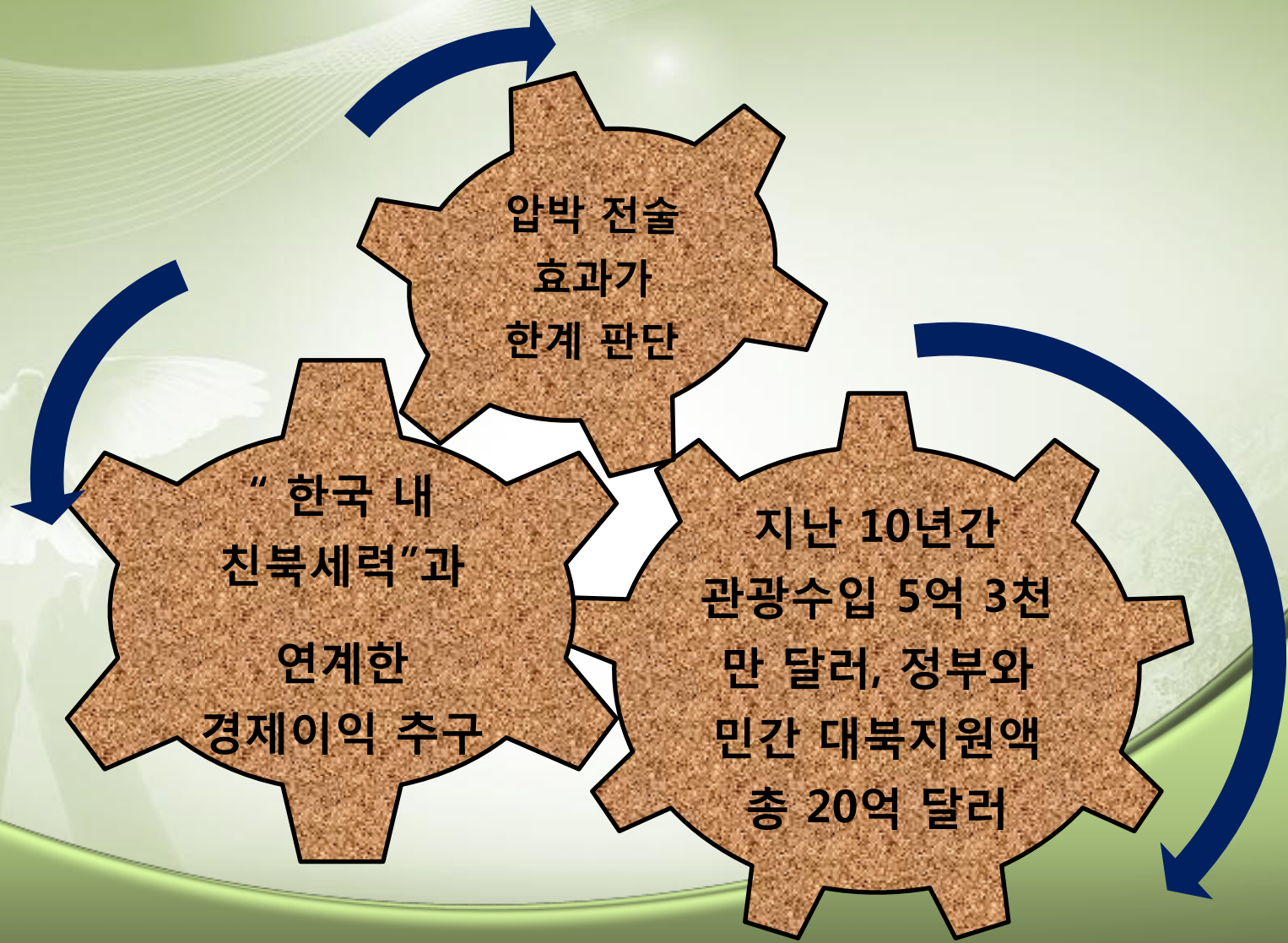
서해도발

유화국면

핵실험



북한의 대남 전술의 패턴과 목적



북미관계 정상화에 유리한 환경 조성

- 한국정부와의 관계개선을 통해 방해 요소 제거 및 지지여건 강화

국제사회 대북제재 완화 및 무력화 시도

- 한국을 유엔제재에서 이탈 유도

경제적 실리 획득의 유일한 창구로 활용

- 북한의 식량난 해소를 위한 유일한 창구로 남한을 지목
→ 적십자회담에서 남한 잉여쌀 질문 등 집중적 관심 표명

Ⅱ. 향후 북한 대응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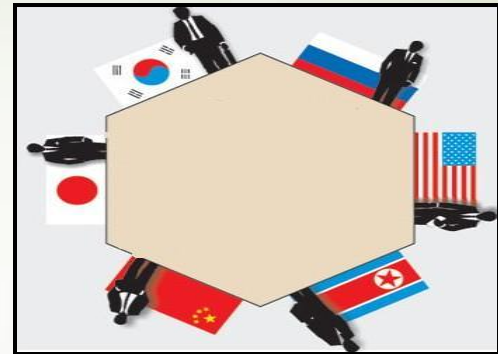
對美 동향

예상되는 북한의 협상방식

북미간 직접협상



기존의 순수한 6자 회담



변형된 6자 회담



참여??

北 평화협정 제의 분석과 韓美 대응



- 비핵화 진전시 평화협상 가능
- 6자회담에서 비핵화 이슈를 '물타기' 하려는 북한의 의도 파악
- 6자회담이 재개되고 나서 비핵화 과정이 추동될 때 직접 당사국들간 별도의 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는 사안



- 北 평화협정 회담 제의에 美 "6자회담 복귀가 먼저
- 北 페이스에 말리지 않겠다"
- 先 6자복귀. 비핵화조치 요구 - 美北 줄다리기 예고
- 핵을 가진 북한과는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을 것.



- 북, 평화협정 당사자 미·중 거론...한국은 모호
- "제재 제거되면 6자회담도 곧"..6자회담, 제재 연계 첫 언급
- 비핵화·평화협정 연계 시사 - 韓·中 포함 4자회의 가능성?
- "선(先) 평화협정 → 조선반도 비핵화 빨라질 것"...6자회담 복귀 시사
- 美에 평화회담 형식 결정 요청
- 北 연일 '평화' 쟁점화...5자 대응 복잡

北美 대화의 진전

- 스티븐 보즈워스 美 오바마 대통령 특사 방북 (2009年 12月)
-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요건 불충족 의견서한 의회제출 (2월 3일)
- 로버트 박 억류 43일만에 불기소 석방 (2월 6일)
- 우다웨이 中 특별대표 北·中 회담 결과 통보 및 6자회담 일정 최종 조율시작
- 위성락 방중(23일), 보스워스 방중(24일), 韓美 협의 (서울, 25일)



- 北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중앙보고대회에서 "대화과 협상을 통해 미국과의 적대관계를 종식시킬 것"
- 조선중앙통신 2월 15일 보도



- 美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는 北 6자회담 수석대표 김계관 외 무성 부상이 참여하는 학술회의를 3월 3~4일에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 북한측의 최종 결정과 미 정부의 승인은 미정
- 미국의 소리(VOA) 2월 19일 보도

원자바오 중국 총리 조중관계 60주년 평양 방문(10.3~5)

우다웨이(武大偉)

[8.17 ~ 21]



원자바오(溫家寶)

[10.3 ~ 5]



중국을 지렛대로 활용한 북미관계 개선 추진

원자바오 중국 인민지원군 열사 묘 방문 (10.5)

원자바오 중국 총리
마오안잉(毛岸英)
묘소 헌화



원자바오 총리, 평안남도 회창군
중국인민지원군열사 묘에 참배

마오쩌둥(毛澤東) 전 주석의 장남
마오안잉(毛岸英)의 흉상 앞에 헌화

그동안에는 중·조(中·朝) 우의탑이나
형제산 구역의 중국인민지원군열사
묘를 찾는 게 관례

원 총리의 행보를 두고
마오안잉의 희생(1950.11.25)으로

대표되는 양측 간 친선관계를 강조함으
로써 대북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란 분석

원자바오 & 김정일 면담내용



한반도의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으로
한반도의 비핵화 목표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에는 변화가 없다



북한은 다자 및 양자대화를 통해 비핵화 목표를 실현한다는
것을 포기한 적이 없다."면서 다자 및 양자 협상에 참여 의지



북미회담의 상황을 지켜본 뒤
6자회담을 포함한 다자회담에 참여



북미양자 회담을 통해 북미의 적대관계가 평화관계로 전환



북중 우호관계의 "대대손손 계승", '대를 이은 친선'
'경제원조에 관한 교환문서', '경제기술협조협정'에 합의

원자바오의 방북 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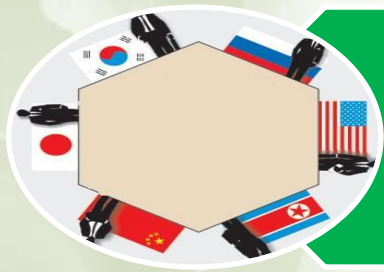


- 10월 4일 평양의 만수대의사당에서 북한과 '경제원조에 관한 교환문서' 등 7개 분야 **협정, 합의문, 의정서, 양해문 등에 조인**
- 경제원조 관련 문서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중국의 대북 무상원조 제공**이라는 점은 쉽게 짐작 가능 (2,000만 달러 지원설)
- 중국측의 숙원이던 **압록강 대교 건설(2,200억 원)이 포함,** "양측간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내년 8월** 개 **압록강 대교 착공이 가능할 것**" [단동신문, 10월 15일]
- 중국은 압록강 대교가 신설되면 북중 교역량 확대는 물론 북한이 대외 개방에 나설 경우 **풍부한 지하자원 확보에 용이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압록강 대교 신설에 적극적

왕자루이 & 김정일 면담 (2월 9일)



- 왕자루이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평양 체류 중 5시간 거리 함흥으로 이동 현지지도 하는 김정일 위원장을 찾아 면담. (2010년 2월 9일)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함경남도 함흥시에서 우호방문한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대표단을 만났다 - 中 신화통신
- 친선적인 담화 - 北 조선중앙통신



중국은 선(先) 유엔제재 해제'를 요구하며 6자회담에 소극적인 북한이 복귀하도록 김정일 위원장을 찾아 설득



김 위원장의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모습을 중국 측에 과시하려는 의도, 화폐개혁 이후 각종 재화의 공급경색을 풀기 위해 중국의 대규모 원조가 절실하다는 사정을 부각.



김영일 & 후진타오 면담 (2월 23일)



- 김영일 당국제부장 - 중국 공산당과 당대당 외교'를 전담하는 부서의 대표, 前6자회담 북한측 수석대표
- 왕자루이 방문에 대한 답방, 연례적 당교류
- 중국측과 김 위원장의 방중에 따른 사전 정지작업

- “중.조 친선의 해'와 관련한 행사를 성과적으로 진행해 전통적인 중.조 친선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 -北 조선중앙방송
- 후진타오 주석이 김영일 부장과 만난 자리에서 양국간 우호와 협력관계를 강조 - 中 신화통신



6자회담 등 국제적 문제 접근을 조율
당관계의 강조를 통한 양국동맹 강화

對南 동향



남북 회담 일지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한 당국간 접촉(09.4.21)

- 北, 우리측의 '유씨 접견 요청' 조차 거부, 억류 장기화 우려
- 南 " 국가원수 모독말고... 개성공단 유지돼야 " ;정부, 北에 5개항 통지문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한 1차 당국간 실무회담(09.6.11)

- 평균 75달러 선인 1인당 개성 근로자 월급을 300달러로 인상
- 연 인상율은 10~20%로 요구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한 2차 당국간 실무회담(09.6.19)

- 南,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3대 원칙' 제시
- 北, 개성공단 통행제한 풀 용의 밝힘.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한 3차 당국간 실무회담(09.7.2)

- 南, '실질적 회담을' 제시
- 北, 종래의 입장만 되풀이 해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단 이명박 대통령 면담(09.8.23)

-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을 위해 21일 방남한 북한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면담.



금강산 적십자회담(09.8.26-28, 금강산)

- 추석 200명 규모 이산가족상봉 행사 합의, 인도주의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北 '800연안호' 선원 4명 석방(29일) 발표]



금강산에서 추석 계기 남북 이산가족 상봉(09.9.26-10.1)

- 2007년 열린 제16차 이산가족 상봉 이후 약 1년11개월 만에 성사
- 유종하 대한적십자사 총재와 장재언 조선적십자회의 중앙위원장이 면담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한 실무회담(09.10.14, 개성)

- 北, "임진강 사고로 남측에서 뜻하지 않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유가족에 대해 심심한 조의를 표명한다" 南, "사과로 본다"



적십자 실무접촉(09.10.16, 개성)

- 남북 적십자접촉 합의불발, 상호 요구는 확인
南, 내달 서울-평양 교환상봉. 내년 설 상봉 제의
北, 측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우리 정부에 인도적 지원을 공식 요청

급변하는 10월 => 대남 압박과 대화 전술 병행

12
日



동해안에서 사거리 120km의
KN-02 지대지 미사일 5발을 발사

13
日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회담과
적십자 실무접촉 제의를 즉각 수용

14
日



황강댐 방류로 인한 피해에 대한
유감과 유가족에 대한 조의를 표시

15
日



남한 해군의 '영해 침범'을 주장
"결코 보고만 있지 않을 것" 위협

16
日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사실상의 상봉 대가를 요구

대청해전전 [2009.11.10]

남북 서해교전 상황도

북 경비정 침산궤 인근 기동 남하

백령도 11.3km
대청도 9km
교전 지점

북한 남한

서해교전 동급 해군항정 침수리후

연암 YONHAP NEWS AGENCY

10일 오전 11시 27분

해군 2함대사, 북 경비정 1척 NLL 침범 전 후 각각 2차례씩 총 4차례 경고통신 보냄. 북 경비정 계속 남하.

11시 32분

해군, 북 경비정에 경고사격하겠다는 경고통신 보냄. 북 경비정, 해군의 사격 경고 통신에도 불구하고 2.2km 정도까지 지속 남하.

11시 36분

해군, 교전규칙에 따라 북 경비정 전방에 경고사격.

11시 37분

북 경비정, 우리 고속정 겨냥 85mm 추경 유효 약 50여발 발사. 우리 고속정 직회 할고와 조타실 사이 외부격벽에 15발 맞음.

11시 37분~39분

우리 고속정 40m 함포 100여발 대응사격. 11시 40분 북 경비정 반파된채 퇴각.

1·2차 연평해전 및 서해교전 차이점

	1차 연평해전 (1999. 6. 15)	2차 연평해전 (2002. 6. 29)	2009. 11. 10 서해교전
교전수칙	경고방송 ↓ 시위기동	차단기동 ↓ 경고사격	경고방송 및 시위기동 ↓ 경고사격 ↓ 격파사격
피해상황	남측: 함정 2척 약간 손상 북측: 어뢰정 1척 침몰, 중형 경비정 3척, 소형 경비정 2척 파손	남측: 고속정 1척 침몰, 북측: 경비정 1척 대파	남측: 고속정 외부격벽 총탄 손상 북측: 함정 1척 반파
사상자	남측: 9명 경상 북측: 20명 사상	남측: 6명 사망, 18명 부상 북측: 13명 사망, 25명 부상	남측: 부상 없음 북측: 1명 사망, 3명 부상(추정)

2004년 개정

연암 YONHAP NEWS AGENCY

北도 NLL 침범, 南함포탄 200여발 퍼부어 '초전 격퇴'

북, 도발이 필요한 시점, 北서해교전 美관심 끌려는 의도

北 평시해상사격구역 일방적 선포 [12월 21일]



- 북한군 서해상 군사분계선 수역을 해안 및 섬 포병 구분대(북한의 부대 명칭)의 ‘평시해상사격구역’으로 선포하며, 본 사격구역에서 모든 어선들과 기타 함선들은 피해가 없도록 자체 안전대책을 세우라
- 아군 해상 사격구역에서 모든 어선들과 기타 함선들은 피해가 없도록 자체 안전대책을 세워야 할 것
- 韓해군; “북한 해군사령부가 억지주장을 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북한이 도발하면 단호하게 대응할 것”
- 북한 군부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미국에 알리는 한편 대남 경각심을 통한 내부결속을 꾀하려는 의도

서해 NLL 지역 北해안포 도발의 전개(1)



北 평시해상사격구역 일방적 선포 (12월 21일)

- 북한군 서해상 군사분계선 수역을 해안 및 섬 포병 구분대(북한의 부대 명칭)의 '평시해상사격구역' 으로 선포
- 북한 군부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미국에 알리는 한편 대남 경각심을 통한 내부결속을 꾀하려는 의도

北 해상사격구역과 항해금지구역 통보(1월 25일)

- 서해상 백령도와 대청도 동부지역 NLL 인근 해상에서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해상사격을 실시하겠다고 러시아 해상교통 문자방송인 나브텍스(NAVTEX)를 통해 통보
- 1월 25일부터 3월 29일까지 서해 백령도 동방 1곳과 대청도 동방 해상 1곳에 각각 항해금지구역 선포



서해 NLL 지역 北해안포 도발의 전개(2)



北 해안포, 방사포 발사(1월 27일, 28일)

- 9시 5분 부터 이날 오전까지 모두 20~30개의 물기둥이 관측돼 30여발의 포 사격이 이뤄진 것으로 군 당국은 추정
- 북한군 총참모부가 포 실탄 사격훈련을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한 뒤인 이날 오후 3시 25분쯤부터 해안포 사격훈련을 재개

정부의 대응(1월 27일, 28일)

- 靑 외교안보수석 대통령 보고, 대통령실장 긴급 안보대책회의를 소집
- 軍 초기대응반과 합참 차원에서 위기조치반을 즉시 가동하는 한편 육.해.공군의 합동전력을 대기
-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류제승 육군 소장 명의로 대북 경고전통문을 발송
- (2월1일 예정된) 개성공단 실무회담 등 예정된 남북대화 일정들은 그대로 추진할 방침

|||. 한반도 정세 분석과 대북정책 방향

北 2009-2010 신년사설 비교

북한의 2009, 2010년 신년 공동사설 비교

	2010년	2009년
전체 특징	- 밝고 미래지향적인 분위기 - 경제와 대외 부문 강조	- 어둡고 과거지향적인 분위기 - 정치와 사상, 군사 부문 강조
정치	- 창건 65주년이 된 노동당의 역할 강조 - 청년(혁명 3, 4세대)의 미래 역할 강조	- 사상사업과 단결 강조 - 1970년대 과거의 노동당 사업 회고
경제	- 인민생활 향상 강조(농업 경공업 발전) - 국방공업 언급 없음	- 4대 선행부문(금속 철강 등) 강조 - 국방공업 강조
대남	- 남한 당국 비난 없음 "남조선당국은 북남공동선언을 존중하고 북남대화와 관계 개선의 길로 나와야"	- 남한 당국을 '파쑈'로 비난 "남조선 인민들은 사대매국적인 보수당국의 파쑈통치 쓸어버려야"
대미	- 미국 직접 언급 "조미 사이의 적대관계 종식"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체제를 마련하고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입장은 일관"	- 미국 직접 언급 없음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들과 관계를 발전시키며 세계의 자주화 위업에 이바지"

北 2010 신년 공동사설 분석

경제가 최우선 과제

- * 경제 문제를 푸는 데 국가적 힘을 집중
- * 주민생활 향상과 경제발전에 총력강조

민족 중시, 반보수 대연합 실현

- * 한나라당 '매국적인 친미반동 보수세력' 규정
- * 남한 內 반보수 대연합 실현
- *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 고조



핵(核) 해결 언급 없어

- * 핵 보유에 대한 자부심을 내세웠지만 6자회담 등 핵 문제와 관련한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언급 없음

전 망

- * 남북정상회담 가능성 주목
 - 북핵 연계변수가 관건
- * 대미 비난은 없음에 주목
 - 대내 단 속은 강화할 듯
- * 美 언론 "北 신년사설 희망적 신호일수도"

北 국방위 대변인 성명(2010.1.10)

전문

1. 남조선당국은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이며 반평화적인 《비상통치계획-부흥》을 꾸며낸 본산지인 남조선의 현 《통일부》와 《국정원》을 즉시 해체하고 무엄한 대결계획작성의 주모자들을 민족의 심판대우에 올려놓고 엄벌에 처하는 응분의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할 것이다.

남조선의 현 《통일부》와 《국정원》과 같은 모략기구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그 언제가도 민족의 화해와 협력도, 북남관계의 개선도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다.

2. 일단 우리 혁명의 최고수뇌부와 존엄높은 사회주의제도를 어찌보려는 남조선 당국의 무모한 도발계획이 완성되고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는 조건에서 《청와대》를 포함하여 이 계획작성을 주도하고 뒤받침하여온 남조선당국자들의 본거지를 송두리채 날려보내기 위한 거족적인 보복성전이 개시될 것이다.

이 성전은 우리 혁명적 무장력을 포함하여 북과 남, 해외에 있는 모든 동포들이 총동원되는 전면적이며 전면적인 정의의 투쟁으로 될 것이다.

3. 남조선당국은 저지른 반공화국 죄행에 대하여 온 민족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는 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앞으로의 모든 대화와 협상에서 철저히 제외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민족의 화해와 협력대신 불신과 대결을 고취하고 평화와 통일대신 전쟁과 분열을 추구하는 자들은 그가 누구이건 백두산 혁명강군의 무자비한 징벌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北, 정전협정당사국 평화협정회담 제의

(2010년 1월 11일)

조선전쟁 발발 60년이 되는 올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할 것을 정전협정 당사국들에 정중히 제의

애초에 평화협정은 핵문제와 관계없이 자체의 고유한 필요성으로부터 이미 체결 되었어야 했고, 조선반도에 일찍이 공고한 평화체제가 수립되었다면 핵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

평화협정 회담은 9.19공동성명에 지적된대로 별도로 진행될 수도 있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조미(북미)회담처럼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테두리 내에서 진행

정전협정 당사국들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 비핵화를 진심으로 바라다면 더 이상 자국의 이익부터 앞세우면서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대담하게 근원적 문제에 손을 댈 용단을 내려야 할 것



성명 발표 후 北 동향 => 10일간 대남 냉온탕 접근



- **김정일, 육·해·공군 훈련 참관 (10.17 보도)**
 - 북한군의 대규모 합동훈련을 소개; 전례 없는 일
 - 14일부터 서해지역에서 3군 합동훈련,
 - 240mm 방사포 차량 10여대(사진) - 南 수도권 위협
- => 강경과 온건책의 혼선,
대남, 대외, 대내 군사 정책이 각자

- 1.11 평화협정 제의
- 1.14 아태평화위 금강산 개성관광 실무 접촉 제의
- 1.15 적십자위원장 옥수수 1만톤 지원 접수
- 15일 낮 훈련 실시 [보복 성전] 협박은 훈련이 끝난 뒤인 15일 18시 발표
- 北노동신문 [1.18일 논설]
- 북남관계의 전도는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

- **남북 개성공단 해외 시찰 평가 회의, 19일 진행**
 -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참석자들에 대한 방북 동의서
 - 대남 위협에도 불구하고 교류·협력은 지속하려는 뜻

해안포 도발 이후 경과

■ 해상사격구역 지정 (2월 3일, 19일)

- 서해상 백령도와 대청도 동부지역 NLL 인근 해상 (기간:5일~8일)
- 동·서해상 8곳을 지정(기간:20일~22일)

■ 국회국방위원회 '국방업무현황' 보고 (2월 19일)

- 북한군은 NLL 인근 서해안 주요 포병기지에 수도권을 위협하는 최대 사정거리 60여km의 구경 240mm 방사포 수십문을 전진 배치

■ 우리군의 대응

-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33개 유형의 도발 시나리오를 상정
- 해안포 기지를 원거리에서 타격할 수 있는 개량형 해상초계기 (P-3CK) 8대를 연내 전력화
- 무인정찰기(글로벌호크)를 앞당겨 구매하고 대북 정찰위성도 조기에 확보



서해 NLL 지역 北해안포 도발의 원인



■ 남북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평화협정 체결의 시급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

■ 화폐개혁 이후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대남 적개심을 고취시켜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의도

■ 예정된 남북회담에서 협상을 주도하고 전략적 우위를 고수하려는 선제적 위기조성 의도



도발을 통한 긴장 조성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방향

비핵 개방 3000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1인당 주민소득 3,000달러 경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
- 핵문제 진전에 따라 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생활향상 등 5대 중점 프로젝트 단계적 추진
- 남북간 협의체 구성, 경제협력협정 체결 등 필요한 제도적 장치 강구

북한의 발전과 국제사회 참여 지원

- 북한이 국제사회 변화와 세계화 흐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 비핵화에 따라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를 지원하고, 국제사회와 교류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우리경제에도 새로운 성장 동력 제공

- 남북경제는 상호 보완적 구조로 발전, 평화통일의 실질적인 기반 마련

「비핵·개방·3000」에 대한 오해

先핵폐기론

대결론

핵폐기에 오랜 시간이 소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정책이라는 오해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름

- 북핵 문제가 진전되는 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남북경협을 확대·추진한다는 입장
- 현재도 민간차원의 경협·대북지원은 계속 추진
 - ➔ 「비핵·개방·3000」이 조건론이 아님을 증명

제 63주년 광복절 및 대한민국 건국60년 대통령 경축사('08.8.15)



남북한이 통일되면...
해양과 대륙이 연결되어 한반도는 닫힌 공간에서
열린 공간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 미래는 꿈꾸는 자의 것입니다.
혼자 꾸는 꿈은 꿈에 그칠 수 있지만
8천만 겨레가 같은 꿈을 꾸면 그것은
반드시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한민족이 하나가 되면 이토록 위대할 수
있음을 후손들에게 보여줍니다.

2009년 제64주년 광복절 대통령 경축사 ('09.8.15)

북한 핵포기 최선

핵무기는 북한의 안전을 보장못해
북한의 장래 더욱 어렵게 함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을 열고 대화

북한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고
남북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길 모색

한반도 새로운 평화 구상

북한 경제를 발전시키고 삶의 획기적 향상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적극 실행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 고위급회의 설치

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생활향상 분야에
걸친 대북 5대 개발 프로젝트 추진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재래식 무기의 감축

남과 북이 만나서 대화하기 위한
어떤 수준의 협력도 할 준비

그랜드 바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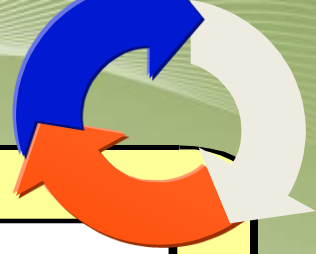
9.21

뉴욕 코리아 소사이어티



- 이제 6자회담을 통해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을 폐기하면서 동시에 북한에 확실한 안전 보장을 제공하고 국제 지원을 본격화하는 **일괄 타결, 즉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을 추진해야 한다.
- 북핵의 완전한 폐기라는 본질적 문제를 제쳐 둔 채 핵 동결에 타협하고 이를 위해 보상하고 북한이 다시 이를 어겨 **원점으로 회귀하는 지난 20년의 전철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 북핵 폐기의 종착점에 대해 확실하게 합의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행동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5자 간의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푸는 **통합된 접근법(integrated approach)**이 나와야 한다.
- 북한은 이러한 프로세스를 자신의 체제에 대한 위협이나 포위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핵을 버리고 국제사회에 나오겠다**는 북한을 적대시할 국가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
-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함으로써 미국 및 국제사회와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될 것이며 이는 곧 **북한 스스로를 살리고 발전시키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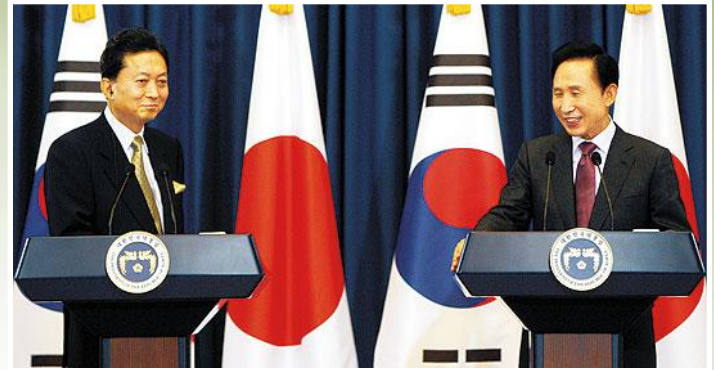
그랜드 바겐 등장 배경



- 그동안 북핵 협상을 보면 단계별로 협상(action for action)을 하면서 **이행 직전에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타협과 파행, 도발 진전과 지연을 반복해 온 악습을 차단=> **'비가역성'이라는 핵심개념 도입**
- 흥정대상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실속을 챙기는 북한의 **'살라미 전술'**에 따른 협상전략 차단
- 핵프로그램의 핵심부분을 폐기하여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핵폐기를 확실히 하는 협상 완료, 그 직후 바로 이행에 들어가 북핵 폐기와 대북지원을 동시에 가져가는 **이른바 '원 샷 딜'**을 추진
- '포괄적 패키지' 용어가 정치·경제적 보상의 이미지가 강하다
대체용어로 **'통합적 접근법'** 즉 그랜드 바겐을 사용
- => 정부의 핵심 아젠다 선정, 협상의 initiative 를 장악, 1994년 1차 북핵 위기 해결 북미 제네바협상, 한국 소외 경수로 지원 비용만 부담

그랜드 바겐 (Grand Bargain) 5자협력 추진 - 한일정상회담

2009년 9월 9월 청와대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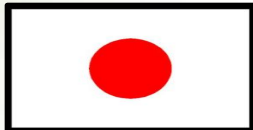


이명박 대통령



- “한일 정상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하토야마 총리



- “이 대통령이 주장하는 그랜드 바겐, 즉 일괄 타결 방안이 아주 정확하고 올바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해 일괄적, 포괄적으로 문제를 파악 북한의 구체적인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한 경제협력을 해서는 안 된다”
- “일본인 납치문제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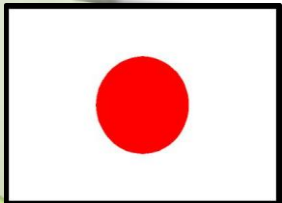
한중일 정상회담



- '그랜드 바겐' 즉, 북핵 일괄 타결 방식은 평소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 정상들이 **공통적으로 평소 갖고 있는 생각이며**, 앞으로 계속해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 북한의 남북 대화 의사를 환영하고, **북핵 포기가 전제돼야 여러 협력이 가능.**
- 북핵 일괄 타결 방식을 **김정일 위원장에게 설명하고 싶다.**



- 북한이 북미 관계 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와 북일 관계도 개선을 희망**
- 양자 회담은 6자회담의 틀 안에 있어서 모순되지 않으며, 중국이 북한에 제공한 원조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 북한의 북일 대화 의사를 환영하고 **이 대통령이 제시한 '그랜드 바겐'의 방향성을 공유하고 있으며 북미 양자 회담이 6자회담으로 조속히 연결**
- “북한 핵 폐기, 탄도미사일, 남치문제를 말했고 이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그랜드 바겐이라는 표현으로 이 대통령이 제창”
- “그 방향성을 공유하면서 목적을 실현시키면서 **북한의 구체적 행동을 요구하는 스텝으로 양자대화도 의미가 있는 것**”

원칙을 견지, 의연하게 대응

- 북한이 우리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신뢰할 수 있도록 일관성 유지
- 북한에 대해 계속 대화에 나오도록 촉구

생산적이고 실용적인 남북관계 발전

- 남북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교류협력 적극 추진
- 남북교류가 구체적 성과를 내는 방식으로 진행
- 금강산 사건과 개성공단 3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정책방향

국민적 합의 강화

- 대북정책에 대한 소모적 논쟁 지양
-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의견수렴 절차 확대
- 투명한 대북정책 추진

- 민간차원의 북한 산림녹화사업 지원
- 당국 차원의 소규모 시범 조림 사업 추진
 - 장기적으로 남북 상생의 조림·CDM
 - 기반 마련

- 개성-신의주 철도 /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문제 협의(향후 TSR · TCR 연결)
- 한려 가스관 연결(PNG)사업 추진

▪ 산림 협력

▪ 북방경제협력 인프라 구축

▪ 농수산 협력

▪ 지하자원 개발협력

상생·공영의
경제 협력 추진

- 남북 공동영농사업, 농업 기술교류
- 동해 북한 수역 우리 어선 입어, 수산물 가공분야 협력

- 북한 단천지역 광산개발 사업 추진

- 북한은 마그네사이트(40억톤, 세계 2위), 흑연(200만톤, 세계3위), 200여종 유용광물 매장(약 3,719조원 잠재가치, 남한의 약 18배)
- 우리나라는 2007년 아연광 133만톤, 마그네사이트광 27만톤 등 주요광물을 대부분 해외수입 의존

유엔 제재
분위기 유지



남 북
대 화 적극 추진



원칙 고수의 대북정책 구사



향후 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당국간 회담에서는
핵문제가 반드시 논의되어야 함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
(1만톤:35억원) 이내=>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국군포로(560명) 납북자(494명)
문제 해결 => Frei Kauf(돈으로 자유를 산다)
서독은 1963-1989년간 15억달러를 투입하여 3만5천명의 정
치범을 석방시킴

▪ 북한 체제가 아닌 북한주민을
정책 대상으로 한 대북정책

▪ 「북한당국-민간기업」 합의 내용에
선별적 승인조치를 통한 절차적 합법성 유지

▪ 5자 협력을 통해 그랜드 바겐 구상의 실현 =>
핵폐기 나서면 안전보장하고 국제적 지원 본격화



대북 정책 추진 방향



상생

+

공영

유연한
대처

신종플루 약제 50만명분 (180억원)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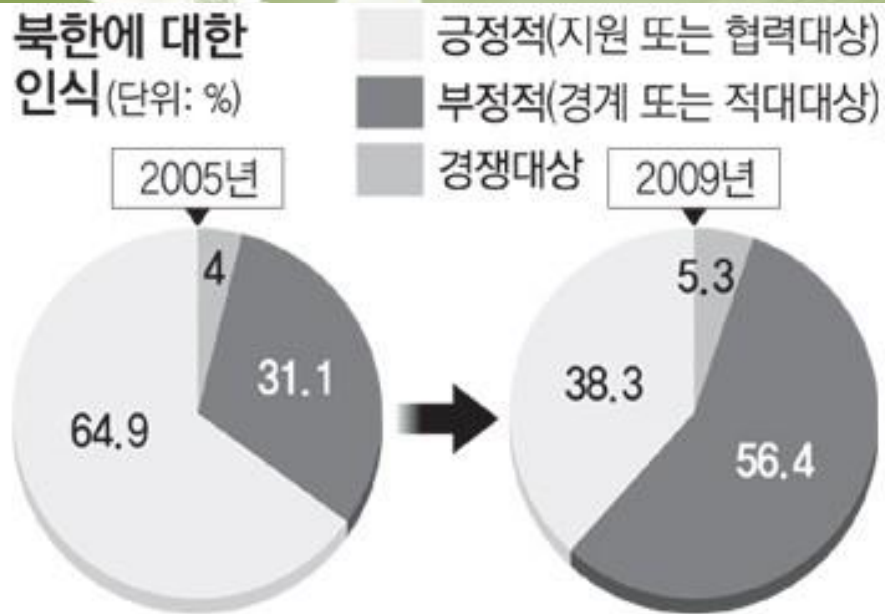
남북간 군통신 현대화 장비 지원 (9억원)

200명 수용 개성공단 내 탁아소 건설

南, 남북협력기금 9억원 투입 北,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운영

대북인식의 변화

북한에 대한 인식(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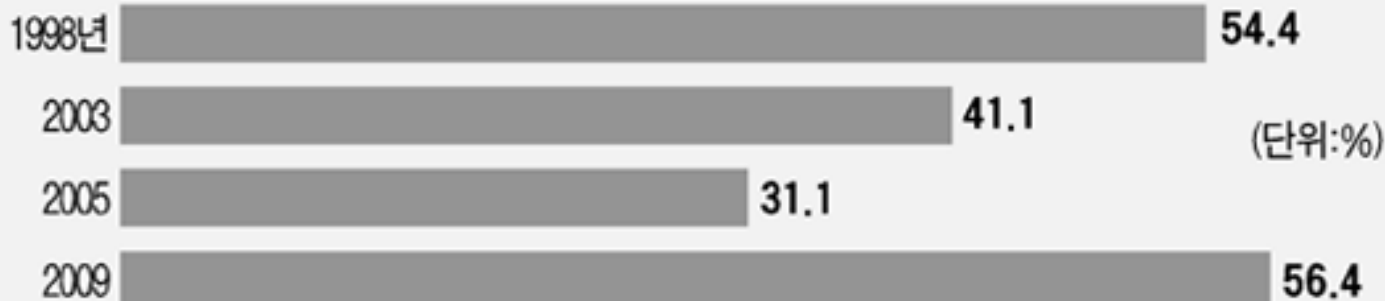
자료: 통일연구원

■ **현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북한의 대남 비방과 협박, 도발로 인한 남북관계의 경색, 북한 체제의 경직성 =>**

■ **대북정책 지지도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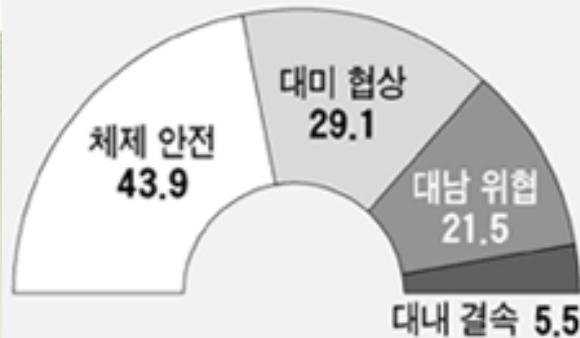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
햇볕정책 이전 수준**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상대인가 — '경계' 또는 '적대 대상' 이란 부정적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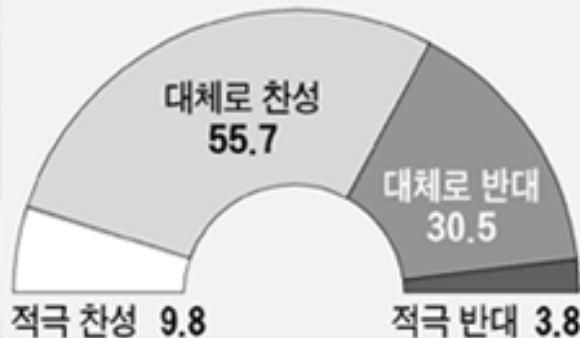


대북정책 인식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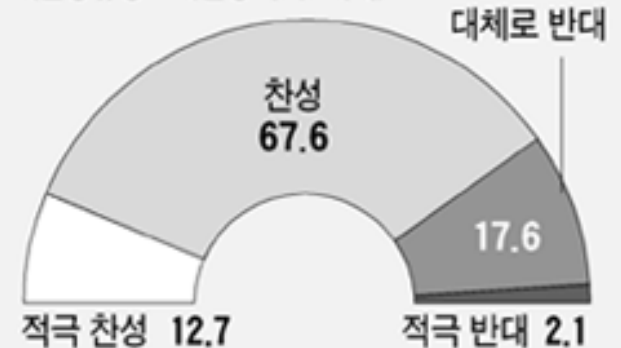
북한의 핵 개발 이유는



북핵 폐기 결정 시 대규모 지원



금강산 관광에 대한 정부 입장
(진상규명·재발방지 후 재개)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가구 방문을 통한 일대일 면접조사로 2009년 11월 9~30일 조사했으며 95% 신뢰도, 표본오차 ±3.1%p
조사 주관:(주)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

-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58.4%가 대북정책에 찬성, '그랜드바겐' 구상에 84.1%가 지지했다.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핵 폐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53%)도 절반을 넘었다

The background is a soft green gradient with a circular vignette. In the upper left, a white dove is shown in flight. In the center, a hand is shown holding a glowing heart. In the lower center, two hands are shown clasped together. The overall mood is peaceful and grateful.

감사합니다